

선암사 도서관 설립 추진

학인스님 중심, 연구 면학 도량 기대

태고종림 선암사 강원외의 학인 스님들을 주축으로 신앙 교리연구의 저변확대 및 면학분위기 일신을 위한 선암사 도서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사찰 도서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달전부터 도서관 설립 모연에 들어간 선암사 강원외 학인스님들은 결재기간 이전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원 북도에 서가를 꾸며 절제기간동안 사 용기로 했다.

이에대해 선암사 도서관 설립을 적극 추진해온 성공스님은 "해제와 동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모연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찰 도서관은 학인스님들의 공부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신도들과 사찰을 찾는 일반인들도 함께 접할 수 있는 불교 만남의 장소 역할도 함께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포교 법당문 넓히기 활발

30일 군승의 날, 제도·특별교구화 주제 세미나

올해로 출범 26주년을 맞는 육해공군 군승단이 여전히 '군승의 절대부족' '종교별 성직자 불균형' 등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어 시급한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다.

포교의 황금어장으로 꼽히는 군포교에 있어 타종교보다 20년 늦은 지난 68년에 출발한 군승단은 26년간 2백5십여명의 법당건립과 1백2십여명의 전역 법사와 1백여명의 현역군승을 탄생시켜 왔으나 아직까지 군포교의 각 분야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새로운 전력이 요구되고 있다.



◇군포교의 실무를 맡은 군승들의 활동영역 넓히기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69년에 설립된 최초의 군법당 불사사.

이와관련 군승단은 30일 제 26회 군승의 날을 맞아 기념법회와 제도개선과 군승특별교구 제정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군승의 자질향상과 군승의 증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군포교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일차적으로 군승법사와 군법당수의 절대부족에 있다. 기독교와 비교해 보면

군종장교의 수는 6:1, 사설수는 8:1로써 매우 빈약한 현실이다. 개인신자관리의 측면에서도 군법사 1인이 상대하는 신도수는 약2만여명이다. 그러다 보니 한번도 법사를 보지 못하고 제대하는 수도 상당수인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군승단은 지난 7월초 개혁군승단을 출범 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또는 정부차원의 무게 있는 지원이 없는 현재 군승

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군승의 위상정립에 있어서도 종단승가로서 본연의 수행자상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대다른 제도적으로 뒷받침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역법사의 효율적관리의 문제도 이대다른 안건이 다뤄져야 한다. 전역후에도 종단에서 수용을 강화해 종단의 포교사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종교의 경우 군선교를 전

담하는 독립기구를 갖추고 있어 군종교와 교단간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군선교 활동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 불교의 경우 군승단 교무부에서 이를 대행할 뿐 군포교를 위한 전담기구가 유독 전무한 상황이다.

때문에 군승단은 이런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포교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군승특별교구를 설립하여 종단의 정책적인 관리하에 군포교를 활성화 시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승단의 기본 역할은 군의 정신전력 강화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군포교는 종단의 중요한 포교거점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군복무자의 신앙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교활동, 인격지도 및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하는 교육활동, 군생활 적응력배양 및 복무의욕을 고취 시키는 선도활동등을 이끌 군승의 역할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위해종단과 불자 그리고 군당국의 보다 폭넓은 관심과 지원이 필수 요건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김중근 기자)



□신임 군승단장 강남석 법사 "내실다지며 수행·포교 할 터"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자자와 포살을 통해 대중앞에 참회하고 회개하여 종단개혁과 더불어 군승단도 의식 개혁을 통해 군승이념 정립, 군승계열정립, 군승강령제정, 포교와 수행에 정진하는 풍토조성, 종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군승교구 설치 추진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승단의 실무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제2대 신임 군승단장 강남석 법사는 취임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군은 포교의 황금어장인 만큼 군포교의 진흥이 바로 한국불교 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강조하는 강남석 신임단장은 "군승 증원을 위해 중앙승가대 학인들도 군승으로 편성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군이라는 특수한 여건속에서도 26년동안 성장해 오는 동안 전후방 각지에서 애써주신 선 후배 법사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강남석 신임단장은 내일의 군승단은 수행하는 군승,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군승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인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사기준 확립과 인사의 공개적 운영을 현실화 하고 단기구의 민주적, 합리적 운영을 통해 군승단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교육을 강화하여 법사 후보생 및 현역 군승의 인격수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강단장은 76년 종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하고 77년 해군 군종장교로 입관, 14년동안 군포교의 일선에서 전력하고 있다.

원용사 국제총림 개산 법회

각종단 외국고승등 3천명 참석

두타산 원용사 국제총림(법주 석법홍)은 지난 29일 오전 11시 원용사에서 두타산 구국종찰 원용사 국제총림 개산대법회를 봉행했다.

원용사 개산 대법회에는 각종단 종정 및 총무원장, 해외 불교국 고승, 국회의원, 국회의원, 각 정당 요인, 각 기관장

등 약 3천여명이 참석했다. 원용사의 주지 법홍스님은 시대적 방향감을 제시하는 불교종중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모든 인간들이 본래 지닌 근본적 힘을 발현하여 참된 대자유인을 양성하고자 원용사 국제총림을 개산했다고 밝혔다.

21세기 대비 종단발전 논의

태고종 69회 총회, 각종 법안도 개정

태고종(총무원장 서봉)은 제 69회 정기 중앙총회를 지난 29, 30일 양일간 태고종 총무원 중앙불교회관 설립전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95년도 종단 사업계획안, 95년도종단 세입 세출 예산안, 법인관리법, 사찰법

등의 종법 제정안과 기타 종단 현안을 주요안건 토의의 순으로 진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중앙총회에서는 21세기의 새시대와 세계화를 대비한 진취적인 종단발전책이 논의 됐다고 전했다.

천태종 재가 불자 동안거

7일부터 한달동안

대한불교 천태종(총무원장 전운덕)은 12월 7일부터 한달 동안 총본산 구인사에서 동안거를 실시한다.

이번 동안거는 모두 1천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하게 되며 각 말사, 지부, 지회가 동시에 결제식을 갖는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에 전념하는 사부대중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실시해 온 동안거는 불멸의 바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하고 구경성불을 목적으로 열려왔다

지 총본산 구인사에서 승려교육을 실시한다.

매년 여름, 겨울 2회씩 열리는 이번 승려교육은 '천태 수행법'을 주제로 이명자교수(종국대)가 강의하며 3백50여명의 스님들이 참가해 수행법의 바른 의미를 되새긴다.

후원회 현판식 가져 부산불교 릴리비전

불교 릴리비전 부산경남후원회(회장 유관수)가 지난 24일 부산시 동구 범일동 중앙빌딩에서 후원회 현판식을 기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불교 릴리비전 태고스님, 법어사 주지 정관스님, 부산불교신도회장 류진수씨, 우병목 사의장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판식은 지원스님의 집전으로 심취외래, 결과보고 및 현황설명, 위촉패전달, 축사, 사홍서원순으로 진행됐다.

천태 수행법 탐구

종도 3백50명 교육

대한불교 천태종(총무원장 전운덕)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총본산 구인사에서 승려교육을 실시한다.

매년 여름, 겨울 2회씩 열리는 이번 승려교육은 '천태 수행법'을 주제로 이명자교수(종국대)가 강의하며 3백50여명의 스님들이 참가해 수행법의 바른 의미를 되새긴다.

후원회 현판식 가져 부산불교 릴리비전

불교 릴리비전 부산경남후원회(회장 유관수)가 지난 24일 부산시 동구 범일동 중앙빌딩에서 후원회 현판식을 기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불교 릴리비전 태고스님, 법어사 주지 정관스님, 부산불교신도회장 류진수씨, 우병목 사의장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판식은 지원스님의 집전으로 심취외래, 결과보고 및 현황설명, 위촉패전달, 축사, 사홍서원순으로 진행됐다.



◇르완다 난민들이 '자비의 중' 저금통

"르완다 난민에 자비 손길"

「자비의 중」 저금통 10만개 보급

르완다 난민들이 저금통 '자비의 중'이 제작 됐다.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는 1차로 르완다 난민들이 사업을 펼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해 세계기아도움기구에 가입, 기아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제3세계에 자비의 손길을 펼칠 예정이다.

난민들이 성공모금을 동참할 원하는 불자는 전국의 서울신탁은행 점포 또는 한국불교시민상담실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02-722-0108)

학업 산림 대법회

3일부터 통도사

통도사(주지 지은)는 학업산림 대법회를 12월3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법당에서 갖는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증득한 진리의 실상을 선설한 대승법문으로 지은, 성공, 효행, 중생스님들 12명의 스님이 이번 법회에서 화엄법문을 설한다.

장상문 거사 2주기

지난 21일 추모 법회

고 장상문거사 2주기 추모법회가 지난 21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유족과 교계인사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추모법회는 법안스님의 참중, 화애에 이어 고 장상문거사의 육성복음을 증경하는 등 시종일관 숙연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법홍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 사부대중이 중원거사를 생각하는 것은 법이요, 중원거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열이다"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학업 강연장의 청중들

30여명 참석

지난 22일 오후7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2백여석의 좌석은 청중들로 메워졌고, 주최측에서 준비한 보조의자까지도 모자라 연단 앞까지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임에도 3백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강연회가 어서 시작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화엄사상대강연회」 도서출판 민복사가 80화원 원역-출간을 기념해 여자인 무비스님과 '소설 화엄경'의 저자 고은 시인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다.

불교관계 학술 행사나 강연회에 3백여명의 청중이 모인 것은 근래에 없는 일이다. 행사장은 언제나 찰떡같았다. 주최측과 발표자 토론자들이 참석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경우도 많이 보아왔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불교계 토론, 강연문화의 정착을 위한 한탄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런 문화 자체를 거론할 풍토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한

학업 강연장의 청중들

30여명 참석

었다. 강연회가 끝나면 청중은 시위대로 변하기 일쑤였다.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와 민주주의를 향한 갈망의 표현이었다.

이날 화엄사상 강연회에 참석한 3백여명의 눈과 귀는 어디로 쏠린 것일까.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강연회에 끝까지 참석한 조성호씨(35.회사원)는 "살아가면서 뭔가 자

학업 강연장의 청중들

30여명 참석

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 강연회에 참석했다"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들을 열고 싶어 강연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삶의 지표를 불교에서 찾고자 하는 반쯤이러한 지나친 숙단일까.

불교는 그동안 그림없는 종단분규로 세인의 지탄을 받아왔고, 의기소침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무비스님은 이날 '화엄경이란 무엇인가' 주제의 강연 서두에서 '인류사 최대의 사건은 부처님이 출현이며, 최고의 결락은 그 깨달음을 설한 '화엄경'이라 고 설명했다. 꼭 무비스님의 언급이 아니라도 불교는 더없는 보배를 갖고 있다.

기대와 우려를 자아왔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도 끝났다.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통해 삶의 풍요를 얻고자 한다. 불교인의 할 일이 그만큼 많이 있음을 어는 강연회에 모여든 청중이 말해주고 있다.

진리의 전화

부처님 불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 상담) 여기 저희의 힘이 있습니다. 따뜻한 가정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교리 상담) 상담전화 (02) 579-3033

구름사 부설 인생 상담

영험높은 병풍 — 계문대사의 16존자 수행상 탱화

16나한수행도 10폭 공단병풍

전면

후면

큰 깨달음으로 부처님의 음성을 직접듣고 정법을 수호하도록 위촉받은 16나한님들의 각기 다른 독특한 수행 모습을 나타낸 중국 최고의 화사 계문대사의 탱화를 공단에 금화로 옮겨 10폭 병풍으로 조성하여 수행하는 모든 불자들에게 나한님의 영험을 전하고자 합니다.

■ 작품개설

- 전면 : 16나한 수행도(금화)
- 후면 : 500나한본기(금서)

귀의삼보 하옵고 삼전불사는 포교의一念으로 우리의 근본이신 석가세존일대기(팔상목)와 부모은중경 병풍을 조성하여 각사찰은 물론 불자님 가정에 모실 수 있도록 전하여 왔습니다. 이어 오래도록 준비하여온 16나한 병풍을 출품하여 다시 찾아 뵙는 일이 부처님께 공양드리는 길이라 믿고 있사오니 불자님의 많은 동참있으시길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 포교특가 ₩420,000(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 장기분할가액
인수시 ₩60,000
매 월 ₩50,000×8회분납
전환주시면 직접 전화하여 드립니다.

한국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田佛事 (조계사후원)
■ 문의처 : (02)732-6095~6